

[2] 2015. 06. B형 [43~45] 도산십이곡 지문

안녕하세요. 책 '순수국어'의 저자 유민우입니다.

이번 칼럼의 소재는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 B형에 출제된 도산십이곡 지문입니다. 처음으로 고전 시가를 소재로 한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전 시가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고전 시가가 어렵냐고 물으면 하나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전 시가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잘 안 읽혀요'

고전 시가에 대한 가장 큰 편견입니다.

고어(古語)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역시 모두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전 시가 해석의 원칙? 현대 시와 똑같습니다!

고어는 '대강' 읽을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래아(·)가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알고, 이어적기 되어 있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누구나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도산십이곡 지문은 출제된 당시에도 여러모로 논란이 있었던 소재입니다. 이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오해에 대해서도 최대한 해명해 드릴 생각이며, 이번 글을 통해서 고전 시가도 다른 파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글'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말로, 이번 칼럼을 시작합니다.

모르는 어휘 해석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절대, 한자어의 배경 지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고전 시가의 경향이 그렇게 더욱 굳어져 가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들 엇더히며 저런들 엇더히로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히로
흐믈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흐로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옳은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조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조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흐애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히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떼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논 멀리 므음 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히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
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롭과 혼가지라
흐믈며 어악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
찌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 순풍: 순박한 풍속.
- * 피미일인: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 * 교교백구: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 어악연비 운영천광: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묘묘한 이치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4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4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 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이 충분한 샘이 있고, 땀값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 시작하고, 천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지문 분석

제1수

이런들 엇더히며 저런들 엇더히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히료
흐믈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흐료

<제1수>



‘자꾸만 이런 듯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는 말뿐이네.

시를 해석할 때에는 항상 상황과 정서 쪽으로 파악해 가야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말 같으니까 수용, 포용하는 자세 같은데?

초야우생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래도 저래도 좋다고 하는 맥락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천석고황도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도 그걸 고쳐 무엇 하나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역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따르며 살겠다는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고전 시가는 말이 너무 어려워져 잘 안 읽혀요’

사실 초야우생과 천석고황을 처음 듣는다면 공부의 부족이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왔다면,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익숙하게 들어보긴 했을 만한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수험생들이 고전 시가를 해석할 때 제일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어휘’인 만큼 최대한 어휘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제2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벼를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논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연하는 뭐지?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벼를 삼는데.
연하는 잘 몰라도, 풍월은 자연과 관련된 거잖아.
자연을 벗 삼아 산다는 말이구나. 자연 친화와 관련되겠네.

앞에 <제1수>에서의 내용도 비슷하겠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며 사는 정도로 잡자.

풍월로 벼를 삼고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 가.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서 병으로 늙어 간다는 건 크게 나쁜 의미는 아닐 거야. 맥락을 따라 생각해보면 뭐 특별한 일 없이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의미겠지.

이 중에 바라논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한데. 계속 똑같네. 욕심 없이 살겠다는 것. 정서를 의지로 잡아도 괜찮겠어.’

고전 시가라고 해서 다른 파트와 별 다를 건 없습니다.

현대 시를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더 넓게 생각해보자면 비문학을 해석할 때와도 거의 동일합니다. 소재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일 뿐, 결국은 모두 ‘글’ 아닙니까.

제3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옳은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거 말씀할가

<제3수>

* 순풍: 순박한 풍속.



‘순풍이 죽어? 순풍이 죽었다고 하는 건 진실로 거짓말이래.
죽지 않았다는 거겠지. 그래, 맥락이 좀 편안하고 수용적인 정
서였는데. 좀 이상적인 상황에서 지내고 있나 보구나?’

인성이 어질다고 하는 건 진실로 옳은 말이래.

천하에 허다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허다영재는 뭐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속여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겠지. 진짜래.’

제4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조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조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하애

<제4수>

* 피미일인: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유란이 재곡하니... 뭐야 이게...

자연이 듣디 조해? 듣기 좋다고? 아 자연을 듣는 게 좋다는
거구나.

백운이 재산하니... 이건 또 뭐야?

그런데 이번에도 자연이 보기 좋다는 말이 나오네.

아, 유란이 재곡하다, 백운이 재산하다 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
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 ‘그래서 자연이 좋다’쪽으로 의미
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중에 피미일인을 더욱 잊지 못한다.

밑에 피미일인이 임금을 뜻한다고 나와 있네. 임금을 더욱 잊
지 못해?

아, 자연 속에서 자연을 감상하다보니 임금님 생각이 난다는
말이구나. 고전 시가니까 뻔하게 나오는 말이기도 해.

정서를 생각해 보자면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 정도 되겠어.

그리고 내용적인 ‘변화’도 잡고 넘길 수 있겠네.

자연 얘기만 계속해서 해오다가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넘
어갔잖아. 항상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제5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로
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허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뭍을 두는고

<제5수>

* 교교백구: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말이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네.

山자는 무슨 말인지 알고, 有도 알고... 有水... 물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산도 그렇고 물 애기가 나오는 것도, 계속 자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겠어?

원래 하던 얘기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거네.

아, 그럼 방금 전에 피미일인과 관련해서 ‘임금님에 대한 그
리움’이라는 변화가 나왔던 것도 다시 한 번 중요하게 여겨볼
수 있겠네.

맥락을 생각해보면

자연
자연
자연
그리고 임금님 그리워요
자연
...

임금님 얘기로 넘어가던 것도 변화로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뒤에선 자연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의 흐름 안에 살짝 꺾여 있잖
아.

이어서 보자.

때 많은 갈매기가 오간대. 갈매기도 자연 친화를 의미하는 전
형적인 상징어지.

엇더타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둔다? 어찌해서 교교백구는 멀
리 마음 두는가! 이런 말인가?

교교백구를 비판하고 싶은가 봐. 이것도 눈에 띄는 변화네.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자연 친화 같은 말만 나왔었
는데 부정적인 대상이 처음으로 등장했잖아.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과 달리 혼자 동떨어져 있는 대
상이야. 이것도 중요하게 여겨도 좋겠어.’

제6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름과 훈가지라

하물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수>

* 어약연비 운영천광: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

‘마지막까지 단어가 약간 부담스럽네. 그래도 해오던 것처럼 아는 말들을 바탕으로 마무리해야지.’

춘풍? 봄바람이겠지 뭐. 화만산은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山이 보이니까 역시 자연이겠네.

추야? 가을밤. 월만대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月이 보이니까 이것도 자연과 관련된 거겠어.

봄바람, 가을밤을 얘기하면서 자연을 말하고 있다? 감상적이고 참 분위기 있네.

사시가흥이 사람과 한가지래. 사시는 사계절 말할 때 그 사시 일테고, 흥은 흥겹다고 할 때의 그 흥이겠지. 마지막까지도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어.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천광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어약연비 운영천광?

밑에 있는 단어 뜻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네. 맥락을 생각하면 되잖아.

“자연이 좋고, 자연을 즐기고 있고, 자연과 하나다.
하물며 무엇무엇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이렇게 놓고 봐도, 그냥 같은 맥락의 말 아니겠어?

작품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 갑자기 맥락과 반대되는 말을 저 부분에 가져다 놓는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렇게까지 건너뛰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휘들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흐름을 잡고, 그 안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전 시가에서의 어려운 점’을 물어보면 대다수가 ‘낯선 어휘’를 1순위로 꼽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방금.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문제점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전 시가가 어려운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앞으로도 고전 시가가 어렵다면
그건 절대 ‘어휘가 낯설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근본적인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 또한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문 제 분 석

43.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발문은 특별하게 생각할 건 없겠고, 바로 선지로 넘어가면 되겠네.’

1번 - 아 뭐 그렇겠지. 자기 얘기 하고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르며 살겠다는 게 전체의 내용인데. 그런 말을 꺼내는 부분인데 주제 의식을 환기하는 것도 당연하고.

2번 - 아니 이것도 뭐 맞겠지. 내 얘기 하고 있었고, 이상적인 사회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3번 - 4수는 변화가 시작되었던 부분이잖아. 흐름상 그 변화 때문에 주목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반복이라니. 정반대로 답인 선지를 만들었네.

답 3번.’

고전 시가의 경향이 점점 변해간다?
사전에 어휘를 많이 공부해두길 요구하고 있다?

시험이 끝난 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1수>에 있는 ‘초야우생’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게 그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그런 여론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다양하고 신기하구나. 이 지문과 문제를 보며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니...’

글쎄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저는 이 지문을 두고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어휘 해석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절대, 한자어의 배경 지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고전 시가의 경향이 그렇게 더욱 굳어져 가고 있다.

물론 고전 시가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어휘들은 분명 있습니다.

고전 시가를 해석하는데 ‘매화’가 등장했습니다. 뭘 의미하나요? 소나무는요? 어부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관습적인 상징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아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학생들 역시 대부분 위에서 꺼낸 상징어는 알고 있으실 테고요. (만약 모른다면 그건 정말 공부의 부족이 맞습니다.)

공부하고 외우는 데에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고전 시가 작품들, 앞으로 보게 될 기출 지문과 EBS 연계 교재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할 테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한자어들. 뜻을 현대어로 풀어서 써 주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어휘들은 어떻게, 얼마나 외워 뒀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는 '개념 정리'의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 얼마나 개념 정리를 해야 시험장에서 모르는 개념이 없을 까요? 한 1만 개쯤?)

그리고 '1:1 대응'의 문제점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초야우생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을 드러낸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이야 말로 '1:1 대응'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의 <제1수>를 해석할 때에 '초야우생이라는 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요?

정말요?

정말이라면, 그것도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지요.

왜? 시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내용적인 요소, 즉 상황과 정서인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게 뭐 별 겁니까.

44. 밑줄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

‘이것도 특별한 발문 아니니까 그냥 선지로 넘어가도 괜찮겠다.’

1번 - 맞겠지.

2번 - 아, 맞겠지! 뭐 이런 걸 물어 봐.

3번 - 맞겠지~~~~~

4번 - 아, 답.

답 4번.’

*

어떤 학생들은,

4번 선지부터 판단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지문에 있는 굵은 글씨만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체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교교백구’가 눈에 안 띄는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더 어려운 문제에서도 흔히.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 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먼저 보이던데...?”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학생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재는 역시 감이 좋아. 국어는 역시 감이 좀 필요해...”

역시 사람의 생각은 참 다양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다양합니다.

4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 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이 충분한 샘이 있고, 땀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 시작하고, 천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꾀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

‘이번엔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면서 감상하라고 하니까, <보기>를 보면서 윗글과의 관계(공통점, 차이점)에 좀 신경을 써 봐야겠다.’

관계는 항상 중요하니까!

‘음... 그곳에는 식량도 마련할 수 있고, 옷도 마련할 수 있고, 먹을 물도 충분하고... 아, 윗글과 공통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을 말하는 건가 보다. 맞네, 모두 다 자기의 뜻에 흡족하다잖아.’

위세를 부리는 자? 글쓴이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응.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이 네 가지만으로도 분에 넘치게 느껴진대. 정말 욕심 없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윗글과 같네.

전원의 즐거움 얘기도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태평성세 얘기도 또 나오네. 전체적으로 보니 윗글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은 <보기>구나.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하겠다는 말도 하고... 역시 똑같이 임금에 대한 사랑도 드러내고 있어. 고전이 뭐 항상 뻔하지. 그러면 만족하겠네.

여기서도 의지 같은 게 보인다고 봐도 좋겠다. 꼭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극복 의지만이 의지인 건 아니잖아.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의지로 볼 수 있지.

이제 선지로 넘어가 볼까?

1번 - 지배층의 꾀박으로부터의 도피? 무슨 소리야,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황이었는데.

2번 - 이것도 무슨 말이야 대체. 지금껏 봐온 내용이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는 거였잖아.

3번 - 이게 답이겠네. 유교적 가치라는 건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내용이니깐 당연히 맞을 테고, 그러면서도 만족하며 살겠다는 게 공통적인 주 내용이었잖아. 쉽게 냈네.

답 3번.’

이것도 ‘유교적 가치’라는 말 때문에 고민한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문을 볼 때에 ‘유교적 가치’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하느냐?

아니요. 지문을 볼 때에 그 말이 왜 떠오릅니까.

‘임금에 대한 사랑’이 지문에서는 ‘변화’라는 측면에서 눈에 띄었고, <보기>에서는 ‘지문과 공통점이 있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눈에 띄면 됩니다.

선지를 볼 때에는?

같은 말이 다른 표현으로 정제되어 나왔다는 생각이 들면 충분합니다.

이 작품은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칼럼에서 말씀드렸던 ‘낮선 어휘를 해석하는 것에 집착하면 점점 더 해석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교훈은 그 해 9월 모의고사에 ‘만분가’라는 소재로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수능 A형 시험에서는 ‘상사곡’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이후,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EBS 전체를 재검토하며 학생들에게 만분가와 상사곡을 수없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카페에 무료 칼럼으로 ‘상사곡’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EBS를 통한 지문 예측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야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같은 관점으로 9월 모의고사의 ‘만분가’와 수능의 ‘상사곡’을 스스로 해석해 보십시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